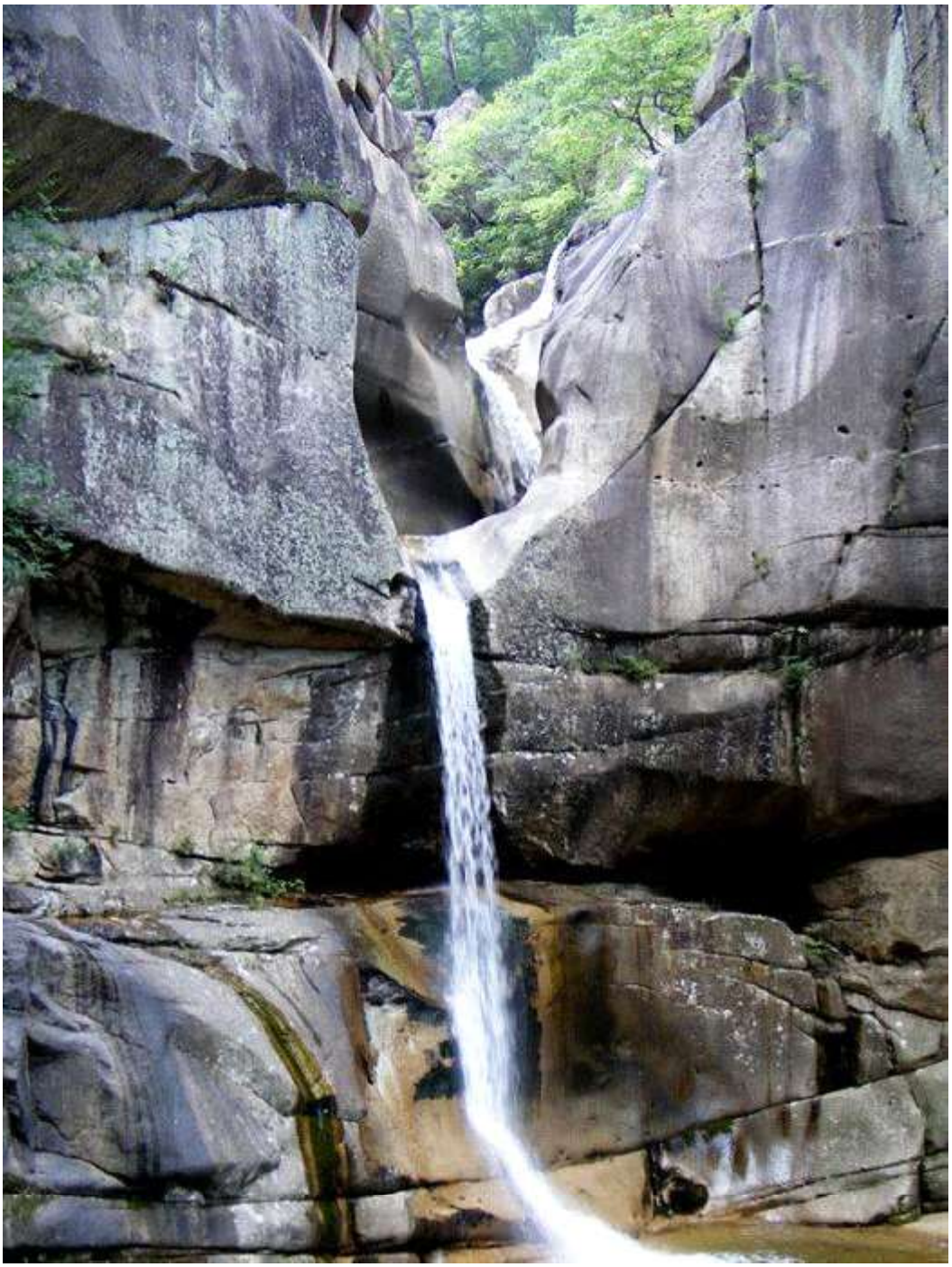
청옥산/두타산 무릉계(역사성1, 인지도9, 접근성4, 연결성1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과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경계에 있는 산.
청옥산(靑玉山)은 해발고도 1404m로 백두대간의 고적대[1357m]와 두타산[1353m] 사이에 있으며, 백두대간의 주능선이다.
청옥산·두타산·쉰움산으로 연결되는 산맥을 햇대등이라 한다. 횃대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래한 이름인데, 햇대라 발음한다. 햇대등에서는 청옥(靑玉)이라는 약초가 많이 생산되므로 청옥산이라 했다고 전해진다.
정상에는 나무가 거의 없으며 화초들만 가득한 넓은 평지로 일종의 고위평탄면이 발달했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가 기반암을 이루며 전체적인 산세가 완만하고 묵직한 형상을 보인다.
『해동여지도』, 『청구도』, 『대동여지도』에 명칭이 기록되어 있으며 『대동여지도』에는 두타산과 청옥산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과거에는 청옥산이 인근에 있는 두타산보다 51m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옥산과 두타산 전체를 일컬어 두타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 숙종 때 발간된 윤두서의 『동국여지지도』에도 청옥산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신경준의 『산경표』에 이르러서야 청옥산이 보이는데, 두타산보다 아랫자락에 청옥산이 놓여 있다. 두타산에서 박달령을 넘어 문바위를 지나 1000m 이상의 가파른 고지를 여러 번 오르다 보면 청옥산 정상이다. 이 거리는 약 3.2㎞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된다.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쪽에서는 폐교된 중봉분교에서 중봉 계곡을 따라 오르다 고적대와 망군대 그리고 연칠성령을 거쳐 청옥산까지는 8.1㎞로 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청옥산 동쪽 사면에는 문간재(門間峙)가 있다. 무릉계곡에서 호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해방 후 없어진 동석산성(혹은 두타산성)의 성문(城門)의

이름을 따서 문간재라 하였다. 문간재 넘어 계곡을 호계라 하는데, 호계 상류에 옛날 상원사가 있었다 하여 속칭 “상원터”라 한다. 지금도 그 옛터가 있다. 1963년에 발간된『삼척사지』에 의하면 청옥산 주봉의 소나무는 1865년(고종 2)에 경복궁을 중건할 때 가장 적합한 동량재(棟梁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사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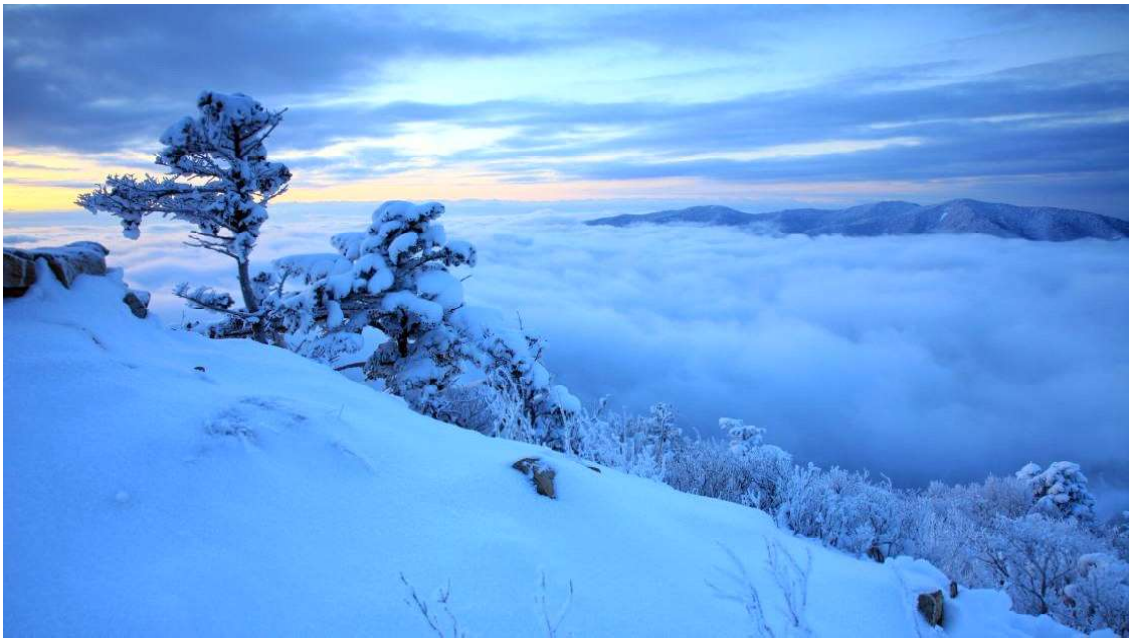

두타산~청옥산 개념도
동 해 시
삼척시
삼 척 시
하 장 면
미 로 면
삼화사
관리지무소
매표소
주차
상가(민박)
관음암
부용반석
금란정
백옥천석잠
갈미봉
1260
1282
하늘문
문간재
시산봉
문지방산성
대궐터
786.7
쉰음산
683
천은사
사원터(대피소)
고적대
1353.9
망군대
중봉리
청옥산
1403.7
비석
묘
문비위
박달령
두타산성
쉰움산군립공원
내이로리
두타산
1352.7
염불암
653.6
1243
고천리
통골목이
삼거리
1021
1028
영주목이
1118
1016.7
닭골재
차은통골재
934
댓재
댓재휴게소
산신각
황장산
1059
반천리
하장 · 태백
삼척 · 동해
상사전리
424
N
0
0.5
1km

대박산/함백산(역사성1, 인지도9, 접근성8, 연결성1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과 정선군 고한읍에 걸쳐 있는 산.
높이 1,572.9m. 백두대간 마루금의 산으로 북쪽에 대덕산(大德山, 1,307m), 서쪽에 백운산(白雲山, 1,426m)과 매봉산(梅峰山, 1,268m), 서남쪽에 장산(壯山, 1,409m), 남쪽에 태백산(1,547m), 동쪽에 연화산(蓮花山, 1,171m)·백병산(白屛山, 1,259m) 등이 솟아 있다.
정암사(淨巖寺) 부근에서 서북쪽으로 흐르는 수계는 사북읍에서 동남천(東南川)이 되어 북서쪽으로 흐르면서 낙동리에서 서쪽으로 유로를 변경하여 곳곳에 하안단구(河岸段丘)를 형성하며 가수리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구래리 부근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수계는 남한강의 지류인 옥동천(玉洞川)의 상류를 이룬다.
남한 지역의 무연탄 생산의 중심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산업철도인 황지지선(黃池支線)과 고한선(古汗線 : 현재는 태백선으로 통합)이 부설되면서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쪽 사면에는 어룡광업소를 비롯하여 대명탄광(大明炭鑛)·풍전탄광(豊田炭鑛)등이 있고, 남쪽에는 함태광산(咸太鑛山) 이 있다.
서쪽 사면의 고한읍 지역에는 사북광업소를 비롯하여 정동광업소·세원광업소·삼척탄좌·정암광업소·삼덕탄광 및 서진탄광 등이 개발되어 있다. 고한과 황지를 연결하는 태백선의 정암터널 공사는 우리 나라 철도 건설 사상 난공사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추전역[杻田驛]은 남한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철도역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 지역은 산악지대이나 자원개발을 위한 산업도로가 각 광업소와 철도역 사이에 연결되어 있고, 특히 태백시와 상동읍 사이에는 국도가 완전히 포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희망재에서 상동의 구래리까지 서쪽 계곡을 따라 도로를 신설, 포장하여 종전의 국도보다 더욱 안전하게 되

었다.
서북쪽 산록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에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사리를 가지고 귀국하여 건립한 절로 알려지고 있는 정암사가 있다. 이곳에는 2020년 보물로 지정된 정암사 수마노탑(淨巖寺水瑪瑙塔)과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암사열목어서식지가 있다. 태백시 쪽 사면에는 심적사(心積寺)라는 절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함백산 등산로
고한리
싸리재터널
중촌
정선
38
고한역
싸리재
(두문동재)
제1코스
추전역
은대봉
1442
정암터널
태 백 산
열목어
서식지
정암사
덕산농장
생터
고 한 읍
제2코스
척조암
입구
중함백
1505
척조암
태 백 시
주목군락지
414
함백산(정상)
1572.9
깔딱고계
세송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
만항재
1330
소공원
국가시설물
구래리
장육봉
1238
수리봉
1214
장산
1409
어평
금경사
태백
영월
제3코스
화방재
31
철동

만항재(역사성1, 인지도7, 접근성10, 연결성8)



만항재(晩項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와 태백시 혈동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다. 높이는 해발 1,330m, 도로 경사는 10%이다.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이기도 하다.
지방도 제414호선을 이용해 정선과 태백 사이를 이동할 때 이 고개를 넘어가게 된다. 고려 말 또는 조선 초기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에 위치한 광덕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두문동에서 살던 주민 일부가 정선으로 옮겨와 살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이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인 만항에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서 '망향'이라고 불리다가 후에 '망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위키피디아)






Photo 산개구리


1191.0
38
두문동
두문동재
두문동재
제1코스
20분
30분
은대봉
1442.3
제1쉼터
태 백 선
정암터널
20분
1203.3
안중터
40분
못골
1037.2
정암사
제2쉼터
1104.7
40분
1311.7
1243.8
1시간
1214.0
고한읍
414
20분
40분
적조암입구
적조암삼거리
1시간
은적암
10분
30분
제3쉼터(전망대)
제2코스
20분
적조암
15분
20분
주목군락지
1385.9
평화촌
1시간
20분
함백산
1572.3
1387.7
만항
1시간
40분
야생화 군락지
"산상의 화원"
1376
사내골
1344.8
만항재(1,330m)

태백산/태백산 천제단(역사성10, 인지도9, 접근성6, 연결성10)



높이 1,566.7m. 백두대간의 종주(宗主)이자 모산(母山)이다. 백두대간이 금강산·설악산·오대산·두타산(頭陀山) 등을 거쳐 이곳에서 힘껏 솟구쳤으며,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소백이 분기되어 덕유산, 지리산으로 이어진다.

태백산은 북쪽에 함백산(咸白山, 1,573m), 서쪽에 장산(壯山, 1,409m), 남서쪽에 구운산(九雲山, 1,346m), 동남쪽에 청옥산(靑玉山, 1,277m), 동쪽에 연화봉(蓮花峰, 1,053m) 등 1,000m가 넘는 고봉들로 둘러싸여 있다. 낙동강의 발원지인 이 산은 1,560m의 고봉군(高峰群)이지만 산세는 험하지 않다.

북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하고 산정 부근에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서남쪽 사면은 급경사를 이룬다. 태백산지는 함백산과 함께 지질구조가 복잡하며 남한 제일의 탄전지대를 이룬다.

대한석탄공사의 장성탄광을 비롯하여 황지 일대에 많은 탄광이 개발됨으로써 작은 마을에 불과하던 지역이 대표적인 광산도시인 태백시로 승격되었다.

태백산은 천년병화(千年兵火)가 들지 않는 영산(靈山)이며, 단종이 악령(嶽靈)이 되었다 하여 단종의 넋을 위무하기 위한 단종비가 망경대(望鏡臺)에 있다. 또한 이 산에는 태백산사(太白山祠)라는 사당이 있었고, 소도동에는 단군성전(檀君聖殿)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에 이 일대는 태백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의 희귀식물로는 태백말발도리 · 좀바위솔 · 들솜쟁이 · 산토끼풀 · 호범꼬리 · 톱바위취 · 노랑무늬붓꽃 · 주목 · 참꽃나무겨우살이 · 참바위취 · 바위괭이눈 · 노랑만병초 · 멍석딸기 등이 있다.

선사시대의 유물이나 전설은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삼국사기》·《삼국유사》에 처음으로 그

명칭이 보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태백산은 토함산(吐含山) · 지리산(智異山) · 계룡산(鷄龍山) · 부악(父嶽 : 지금의 팔공산)과 함께 신라의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로서 북악(北嶽)에 해당하였으며, 중사(中祠)의 제행이 행하여졌다.



《삼국유사》에는 자장(慈藏)이 문수(文殊)를 만나 법요(法要)를 토론한 뒤 태백산 갈반지(葛蟠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곳에 와서 석남원(石南院)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척 읍지인 《삼척진주지 三陟眞珠誌》 척주부(陟州賦)에는 태백산의 명칭에 관하여 "태백산 중에서 가장 높고 흰 산이 문수산이며, 여기에 흰 모래와 자갈이 눈 덮인 듯이 쌓여 있어 산 이름을 태백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옛날 통신수단으로 쓰인 봉수대 자리가 지금도 있고, 이 밖에 산성터 · 낙벽사 · 구령사 등의 절터가 있다. 단종의 묘인 장릉(莊陵)이 여기서 멀지 않은 영월에 있으므로 단종이 백마를 타고 태백산에 들어와 산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여기에 연유하여 태백산 산정에는 '朝鮮國太白山端宗大王之碑(조선국태백산단종대왕지비)'라 쓰인 단종비가 세워져 있다.
또한 예로부터 명산으로 알려져 토속신앙이 성하였으며, 정상을 비롯하여 계곡에 사찰과 기도처가 많았으나 1970년대에 정리가 되어 현재는 작은 사찰 4개와 정상 부근과 당골, 유일사 길목, 백단사 옆 계곡 등에 몇 개의 기도처가 남아 있다.
망경대에 태백산사(太白山祠)라 불리는 사당이 있어 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봄 · 가을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때에는 제수로 소를 잡아 쓰는 것이 아니라 산 소를 산정 제당까지 몰고 가 제당 앞에 매어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 소를 그곳에 매어둔 채 제관들이 하산하였으며, 이때 뒤를 돌아보면 불공하다 하여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3일 뒤에 그 소를 몰아 내려오는데, 이렇게 태백산제의 제수로 쓰였던 소를 퇴우(退牛)라 불렀다. 이 습속은 조선 시대에 있던 것으로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태백산 여러 곳에 있는 토속신앙의 기도처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은 태백시 소도동(所道洞), 속칭 당골에 있는 산신당으로, 이 당골이라는 명칭도 신당이 있다는 데서 연유하여 생긴 것이다. 현재의 태백시민헌장비(太白市民憲章碑)가 있는 곳에서 등산로를 따라 500m쯤 올라가면 거대한 당목이 아직 남아 있고, 그 옆에 사당터가 있다.

당집은 1970년대 태백산 내에 있는 토속신앙을 정화할 때 헐렸고, 지금은 가로 14m, 세로 10m 정도의 축대 위에 시멘트 벽돌 제단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늘 향이 타고 촛불이 켜져 있다.

이곳에는 또한 단군성전이 있는데 전면 3칸, 측면 2칸의 공포집으로 최근에 지었으며, 단군의 화상을 봉안하고 해마다 개천절에 단군제를 지내고 있다.

이 건물을 짓고 여기서 단군제를 지내기 전에는 만경대의 천왕당(天王堂)에서 태백산록 경상북도 봉화군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단군제를 지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조상신제(祖上神祭)이던 것이 주관자에 따라 점점 무속제의식(巫俗祭儀式)으로 변질되자 삼척의 일부 인사들이 따로 단군봉사회를 조직하고 성금을 모아 1978년 당골에 단군 성전을 새로 건립하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태백산의 문화유물로는 사찰과 함께 토속신앙의 기도처가 많이 남아 있다. 사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정암사(淨巖寺)이다. 《삼국유사》에 자장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석남원이 바로 이곳으로, 그 경내의 수마노탑(국보, 2020년 지정)은 자장이 당에서 가지고 온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인데 전형적인 전탑의 하나이다.

이 탑은 벽돌 크기의 탑재를 한장한장 쌓아서 만들었는데, 흔히 보이는 석탑과는 축조방식이 달라 이와 같은 축조 방식의 탑은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봉화 쪽에는 조선시대 사고(史庫)의 하나인 태백산사고가 있다. 한편, 태백산록인 삼척시 도계읍 신리에 있는 화전민촌의 너와집을 비롯한 민속 유물들이 1975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마을은 외부와의 교통이 좋지 않은 산간오지로 현대문화의 수용이 늦어 최근까지도 격리된 생활을 하였으며, 옛날의 산간 민속이나 생활용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지정 자료는 너와집 2채 · 물레방아 · 통방아 · 채독 · 나무통(김치통) · 화티(화투) · 살티(살피 또는 설피) · 창

(槍) · 주루막 등이다.
태백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으로 여겨져 왔기에 여러 개의 사찰과 토속신앙의 기도처가 있으며, 여기서 연유한 전설이나 민담이 남아 있다. 먼저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자장에 얽힌 다음과 같은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자장이 태백산 갈반지에서 문수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노거사(老居士) 한 사람이 누더기 가사를 입고 칡삼태기에 죽은 개 한 마리를 담아들고 와서는 자장을 보러 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자장이 그 행색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하여 내쫓으니 노거사가 말하기를, "자장이 해탈의 경지에 든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아직도 그 경지에 들지 못하였구나. 사람을 잘못 보고 왔으니 돌아가겠다." 하고 삼태기를 땅에 내려놓으니 죽은 개가 사자가 되어 이를 타고 빛을 내면서 가버렸다. 자장이 이 말을 듣고 빛을 좇아 남령(南靈)에까지 올라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진정(眞定)의 출가수도도 그 배경이 태백산으로 되어 있다. 진정이 졸오(卒伍)에 있으면서 홀어머니를 봉양하던 중 당대의 고승 의상이 태백산에서 법연을 연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고자 하였으나, 차마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떠나지 못하였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도리어 아들의 나약함을 꾸짖어 입산을 시키니, 태백산에서 의상의 제자가 되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법호를 진정이라 하였다.
태백산은 이름이 있는 산이기에 시문이 많으나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한문으로 된 한시문이 많고 개화 이후의 국문으로 된 시문은 거의 없다.

《삼척진주지》의 척주부에는 “푸르고 푸른데 어찌 태백이라 하였던가. 그 위에 당집을 짓고 천왕이라 이름 하였네. 신라 · 고려 때부터 숭상하여 믿었고, 모두 무당과 박수의 도회로세. 저 동쪽을 바라보니 팽나무도 많고, 저 남쪽을 돌아보니 크고 높은 언덕도 많네(何蒼蒼兮太白 堂其上而天王 自羅麗而崇信 儘巫覡之都會 瞻彼東兮大朴 瞰其南兮萃覺).”라고 하여 태백산이 신라 · 고려 때부터 토속신앙의 중심지였음을 말하고 있다.
고려 시대 최선(崔詵)의 예안(禮安)〈용수사기 龍壽寺記〉에는 “천하의 명산이 삼한(三韓)에 많고, 삼한의 명승은 동남쪽이 가장 뛰어나며, 동남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태백이다.”라고 하였다.



역시 고려 시대의 안축(安軸)은 태백산을 소재로 하여 “길다란 동천을 지나 자연에 들어가니, 비로소 높은 꼭대기에 오른 줄 알았노라. 둥근 해는 머리 위에 낮아진 듯, 사방의 여러 산이 눈앞에 떨어졌네. 몸이 나는 구름을 따르니 학을 탔는가 의심되고, 길은 높은 비탈에 달려 하늘에 오르는 듯하구나. 비온 뒤 일만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구불구불한 오십천을 건널 일이 근심된다(直過長空入紫烟 始知登了在高巔 一丸白日低頭上 四面群山落眼前 身逐飛雲疑駕鶴 路懸危磴似梯天 雨餘萬壑奔流漲 愁度縈洄五十川).”라는 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조선 시대의 김시습(金時習)은 〈망태백산 望太白山〉이라는 시에서 “멀고 아득한 태백산을 서쪽에서 바라보니, 기암괴석이 구름 사이에 솟아 있네. 사람들은 산마루 신령님의 영험이라 말하는데, 분명코 천지의 조화로세(西望遙遙太白山 碧尖高揷聳雲間 人言嶽頂神靈異 辨得乾坤造化關).”이라 하였다.
홍우원(洪宇遠)은 “얽히고 설킨 뿌리도 많고 높이 솟은 형세 구름 사이에 들어 있네. 높은 봉우리는 온갖 흰 옥이 선듯하고 절벽에는 온갖 산울림이 들리네.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 한가롭게 새 · 짐승 떼지어 다니누나. 무릉도원 깊은 곳에 자리잡고 나의 속세마음 씻고자 하네(合沓盤根大 岩嶢勢入雲 危峰千玉立 絶壑萬雷聞 優優干戈世 閑閑鳥獸群 桃源定深處 吾欲謝塵氛).”라 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 김방걸(金邦杰)을 비롯하여 한말의 우국지사인 송병선(宋秉璿) · 곽종석(郭鍾錫) 등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시문들이 남아 있다.
태백산은 육산으로 금강산이나 설악산처럼 기암괴석으로 되어 있는 경승이 없어 시문에 묘사

된 모습도 금강산과 같은 정취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산이 높고 주위에 높은 봉우리들이 서로 이어져 능선을 이루고 있으므로 선계(仙界)와 같은 느낌을 주어 시문에도 신선의 영상과 산정의 영이(靈異)함이 자주 도입되었다.
이는 태백산이 신라 이래로 제행이 올려지는 오래된 신앙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군봉을 이루고 있는 탓으로 삼척의 오십천 등과 같이 태백산에서 연유한 계류가 많아 산정에 못지않게 계류에 대한 묘사가 시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1) 부존자원
태백산 일대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였다. 특히 양질의 소나무가 많은데, 태백산 서쪽 춘양(春陽)에서 나는 소나무는 '춘양목'으로 유명하였다. 또한 동쪽의 원덕면 일대에서도 많이 생산되었다.
근년에 이 지역이 석탄 산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소나무를 광산의 갱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를 벌채한 뒤 낙엽송을 식재(植栽)하여 태백산 주변에는 낙엽송 군락이 많아졌다.
이 지역의 석탄 개발로 수송에 필요한 교통로가 건설되어 있기는 하나, 워낙 험준한 산간오지인 탓으로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광산 주변은 벌채로 인하여 산림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지만 오지에는 적송과 잡목 등 임상(林相)이 좋은 곳이 많다. 태백 산지는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도계 · 장성 · 황지 · 고한 · 함백 · 사북 등은 석탄 산지로서 탄광 때문에 생긴 도시인데, 이 일대는 매장량 · 생산량에 있어서 국내 제일이다. 또한, 영월군 상동(上東)에는 우리 나라 제일의 중석광산이 있다.

이 지역에서 석탄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37년 일본인이 조선무연탄주식회사로부터 광업권을 양도받아 삼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도계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부터이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종업원들의 자치제로 운영되다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상공부 광무국 관할로 운영되었다. 1950년 대한석탄공사가 발족하여 도계 · 장성 두 광업소에서 채탄을 하였다.
그 뒤 석탄 수요가 급증하자 석탄 채굴이 확대되어 1960년대에 들어 황지에서 본격적인 채굴이 이루어졌다. 함백 · 고한 · 사북 · 예미 지역은 민영 탄광이 들어와 태백산 일대의 석탄 생산이 본격화되었다.
이들 탄광취락은 원래 작은 한촌에 불과하였으나 석탄 개발 이후 산업철도가 전철화되는 등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도시로 발달하였다. 특히, 장성과 황지는 병합되어 태백시로 승격하였다. 석탄 개발 초기에는 지표 가까운 곳에서 채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갱도가 깊어지고 에너지정책에서 석유에 밀려 사양길을 걷고 있다.
(2) 관광자원
고한읍의 정암사 경내에는 수마노탑이 있고, 주변 계곡에는 열목어서식지(천연기념물, 1962년 지정)가 있다. 도계읍에는 높이 20m, 둘레 7.5m의 긴잎느티나무(천연기념물, 1962년 지정)와 석회동굴인 대이리동굴지대(천연기념물, 1966년 지정)가 있다.
대이리동굴은 갈매굴 · 환선굴(幻仙窟) · 관음굴(觀音窟) · 제암풍혈(梯巖風穴) · 양터목세굴 · 덕발세굴 · 큰재세굴 등 크고 작은 동굴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환선굴은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한다. 환선굴은 높이 15m, 너비 20m이고, 100m 들어가면 4개로 나누어진다. 이들 관광자원은 개발이 되지 않아 교통이 불편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밖에 태백시의 황지는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태백산 정상은 사방을 조망하는 경관이 좋고 토산(土山)인 관계로 쉽게 오를 수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다. 등산로는 소도동 쪽 길과 백단사 방향 등 몇 개가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리봉 1233m
Suribong(Peak)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Taebaeksan National Park Office
유일사탐방지원센터
Yulisa Information Center
당골야영장
Danggol Camping Area
현위치
You are here
유일사주차장
Yulisa Parking Area
백단사주차장
Baekdansa Parking Area
화방재
31
사길령
백단사탐방지원센터
Baekdansa Information Center
당골탐방지원센터
Danggol Information Center
당골광장
산령각
태백사
Taebaeksa
단군성전
백단사
Baekdansa
유일사갈림길
반재
Banjae
유일사
Yulisa
반재갈림길
장군봉 1567m
Janggunbong(Peak)
문수봉 1517m
Munsubong(Peak)
소문수봉갈림길
망경사
Manggyeongsa
부쇠봉 1514m
Busoebong(Peak)
천제단
Cheonjedan
소문수봉 1468m
Somunsubong(Peak)
문수봉갈림길
금천
Geumcheon